

### 루코사이토존병(Leucocytozoonosis)

원 송 대  
<한국 카이길 기술지도부>

주혈도자충류속에 속하는 Leucocytozoon Caulleryi 라는 병원체가 닭벼룩모기(Culicoides Arakwae)를 매개체로 해서 닭에 감염되는 여름철 전염병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6월 이후 7~9월세 전파가 많다. 닭벼룩모기의 발생과 일치한다. 감염율은 증추이하의 닭은 80~90% 달하나 새추와 성체는 다른 병원균과 복합감염 되지 않는한 폐사율은 높지않다.

#### Leucocytozoon Caulleryi 의 생활사

닭의 체내에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거쳐 포자세포를 형성한다. 이 포자 세포는 우, 송생식 모체로 이형된 것을 닭벼룩모기가 흡혈하면 모기내에서 수정 발육되어 포자세포로 만들고 이 닭벼룩모기가 건장계를 물게되면 12~13일 경과하여 시존트(Schizont)가 된다. 이것이 곧 낭충체로 이행된다. 이때 출혈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전파된다.

#### 외부증상

출혈→빈혈→녹변→폐사의 순서로 진행된다. 감염후 15~18일되면 적혈구의 수는 반으로 감소되고 빈혈이 심하게 나타난다. 감염된지 20일 넘으면 서서히 회복하는 닭도 있다. 보통 일개월령 전후의 닭은 자혈과 출혈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성체는 산란감소와 발육이 지연된다. 간혹 무증상 감염되어 그냥 내과하는 닭도 있다. 한번 걸린 닭은 잘 걸리지 않는다. 빈혈증상과 녹변현상은 다른 닭병에서도 볼 수 있으며 특히 복강내 출혈하는 경우는 여름철

에 지방계(간의 지방변성)에서 볼 수 있으므로 감별진단을 잘 해야 한다.

#### 병리해부소견

피하근육별 간장에 출혈점과 복강내 피의 응고를 볼 수 있다. 폐사된 닭을 보면 복강내 혈액이 고여 있거나 기관지에 피가 막혀 질식된 것 같이 보인다. 각혈 또는 출혈트 죽은 닭은 안양연구소 계역과에 보내면 응이하게 시존트를 검출할 수 있다.

#### 예방 및 치료대책

예방은 이병의 중간숙수인 닭벼룩모기를 구제하는 방법이다. 계사 주위에 고인물이 없도록 하며 잡초를 자주 잘라서 닭벼룩모기가 서식 못하도록 해주며 아울러 마라치온 유제나 D.D.V.P.와 같은 살충제를 살포한다. 이병이 유행하는 동안은 다음과 같은 약을 사료에 첨가하여 계속 급여토록 한다.

- 피리메타민제 : 0.0001% (사료 톤당 1g)
- 설파제 : 사료 톤당 25~50g (겨주급여)
- 후라조리돈 : 사료 톤당 100~200g

※ 최근에 산란계에서 지방계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지방계는 케이지의 단점이므로 체중조절은 안하고 무제한 급여한 계군은 거의 나타난다. 이런 지방계 닭은 더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갑자기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닭은 벼슬은 노랗게 변하고 복강내 선지 같은 핏덩어리가 간으로 부터 나와 있다. 이런 닭도 파란 똥을 싸다□□